

잘되는 광주 클러스터 '도중하차' 우려

올부터 '졸업' 대상... 국고지원 중단 위기

참여업체 "이제 시작인데... 지속 지원을"

광산업은 광주 전략산업으로 성장 시킨 주역인 광주 클러스터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 클러스터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성적이 우수한 클러스터는 졸업 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국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광주 클러스터는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와 광주지역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이하 MC) 회원사들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퇴출·졸업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MC는 지난 2005년부터 지원 돼 5년 이상 됐는데, 최근 평가(2009

구체적으로 지경부는 전국 81개 MC 가운데 정부 지원 1~2년차를 제외한 모든 MC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5년 이상 됐거나 성과가 우수한 MC에 대해서는 졸업을 시켜 민간 주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잘 되는 MC는 졸업시키고, 안되는 MC는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졸업 대상은 2005년 첫 시범단지로 선정된 광주 클러스터와 군산, 반월시, 원주, 창원, 구미, 울산 등 7개 단지 클러스터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MC 회원사들은 '광주가 졸업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 MC는 지난 2005년부터 지원 돼 5년 이상 됐는데, 최근 평가(2009

년 4월~2010년 3월)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형 미니클러스터 박상오((주)상오정밀 대표이사) 회장은 "영이 잘 되는 곳은 더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안되는 곳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이치에 맞는데, 정부 정책은 그냥 중간만 하리는 것 같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업환경이 열악한 광주지역은 정부 지원이 없이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와 대불 등 2개의 거점단지가 있으며, MC는 광주에 LED·광음용·통신·전자부품·정밀 금형·산업기계 등 6개가, 대불에 해양제작·조선·조선부품·해양에너지 등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클러스터(Cluster)=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IT 산업의 실리콘밸리, 영화산업의 할리우드, 금융업의 월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된다.

채권단은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서면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회사측과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출자전환은 우선 4000억 원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된 후 추후 2000억 원 이내에서 추가로 단행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드러난 만큼 감자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자비율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등 적용으로 했다.

/연합뉴스

채권단은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서면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회사측과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출자전환은 우선 4000억 원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된 후 추후 2000억 원 이내에서 추가로 단행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드러난 만큼 감자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자비율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등 적용으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3년간 겸사실적 종적발전수는 SK에너지 풀사인을 단 주유소가 3만711건 중 298건, GS칼텍스가 2만4016건 중 190건, 에쓰오일이 1만 3931건 중 149건, 현대오일뱅크가 1만6792건 중 196건을 차지했다.

비상표 주유소는 5만837건 중 158 건이 적발됐다.

겸사실적 대비 적발실적 기준으로는 비상표 주유소 적발률이 2.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1.16%), S-오일(1.07%), SK(0.95%), GS칼텍스(0.79%) 순이었다. /연합뉴스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국민연금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매입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소니센터의 임대율과 평균 잔여임대기간은 각각 약 97%와 10년으로 안정된 임대수입과 더불어 향후 독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매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해외부동산 비중은 약 1.3%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소니센터(ソニーセンター)를 매입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독일 베를린 포츠

당장에서 위치한 소니센터를 약 8500억 원에 매입할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MSREF)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